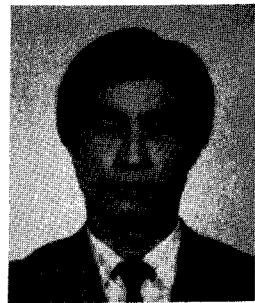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김 덕 현

본회 평택분회장, 크로비농장 대표

'90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채란양계농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입개방 압력이나, UR 농산물협상이니 등등 앞으로 우리가 채란업에 전력투구하는데 장애요인이 산재해 있어 산업에 대한 의욕이 점차 저하되고 과연 내가 이 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더욱 커다란 압박감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각 농장에서는 우리 농장에서 1일 생산되는 계란이 어느 정도인지, 사료효율은 얼마고 생산원가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못 궁급하다.

‘닭’에 대해 완전히 알자.

그저 제때 사료만 잘 주고 물만 공급하면 알을 낳겠지라는 막연한 사고에 젖어 진정 ‘축산’이 무엇이고 ‘양계업’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채란업에 종사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닭관리사항이 곧 계란생산과 직결된다는 기본 지식조차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경쟁에서 싸울 태세는 전혀 갖춰있지 않다고 본다.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 축산인이 되자.

일부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 규모 증대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자기 능력 이상으로 사육 규모를 늘려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적정 사육규모로 증대시켜 계란의 생산원가 절감을 꾀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적정규모 이상으로 사육수수만을 늘렸을 때 모든 관리가 숫자 위주로 개체 관리가 소홀해져 궁극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생산원가 상승원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셈이다.

얼마전부터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에서 축산 폐수 등 공해문제 또는 지가상승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해 양계업에 종사하던 농장이 충청·강원도 지역으로 계사를 신축·이전하면서 사육규모의 대규모화, 전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채란 양계산업이 계분처리로 각 지역의 민원처리 대상으로 대두되어 큰 풀치거리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적정 사육규모 설정이 바람직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채란업계도 심각한 인력난이 커다란 고민거리로 등장한 이후 많은 농장이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흔히 기계화는 대규모 농장에 시설했을 때만이 적합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장에서도 기계화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값비싼 인건비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닭의 사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가족노동중심으로 인력난 해소와 함께 생산성의 극대화를 꾀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인력난 해소는 '가족노동 중심'으로

한편 몇몇 산란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의 첫째 요인으로 사료비 절감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값싼 사료구입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를 얻기 위해 다섯을 잃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료가격에만 관심을 갖고 급급한 나머지 성성숙이 활발할 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CP 함량이 부족한 사료를 급여하여 모체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표 1. 산란용 P.S입식현황

구 분	'88년			'89년			'90년		
	백 색	유 색	합 계	백 색	유 색	합 계	백 색	유 색	합 계
1월	32,600	19,388	51,988	15,819	69,118	84,937	3,700	25,500	29,200
2월	11,200	10,300	21,500	8,502	31,645	40,147	15,600	26,600	40,500
3월	6,000	10,077	16,077	5,600	17,875	23,475	7,300	25,300	32,600
4월	15,000	12,920	27,920	13,661	27,985	41,646	3,000	17,100	20,100
5월	31,507	34,117	65,624	25,115	30,952	56,067	8,300	30,000	38,300
6월	17,400	21,025	38,425	9,000	19,400	28,400	17,200	75,600	92,800
7월		8,325	8,325	3,000	21,025	24,025	3,000	15,000	27,785
8월		41,944	41,944	13,200	1,550	14,750	5,900	36,900	42,800
9월		2,885	2,885	21,750	45,000	67,450	1,100	25,200	26,300
10월		23,952	23,952	7,700	37,600	45,300	0	80,208	80,208
11월	19,119	30,253	49,372	9,000	31,550	40,550			
12월	20,200	35,380	55,580	0	33,201	33,201			
합 계	153,026	250,566	403,592	132,076	376,601	499,948			

적어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피하기는 커녕 생산성 저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남더라'는 더 이상 안된다.

'88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난 후 채란산업은 호황기에 접어들어 최근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온 셈이다.

'90년을 마감하면서 올해의 채란산업은 한마디로 호황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특란 가격이 80원대를 진입하는, 고난가시대를 맞아 채란업자 사이에서는 호황의 만족감을 느끼기에 바쁜 시간이었다.

그러나 계란가격의 호황이 지속되자, 일부 양계업자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하고 생산능력 극대화 노력에 소홀해져 산란율이나 산란지수면에서 예전보다 감소되는 농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수 규모의 산란농가가 있는데 A 농장의 산란지수가 280개이고 B 농장이 240개 미만일 경우 평균 대란가격을 50원으로 정했을 때 A 농장이 B 농장에 비해 수당 2천원의 수익이 증가하며 1만수로 환산하면 2천만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건한 육성계의 육추는 물론 품질 좋은 사료의 적절한 급여, 철저한 사양관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영자 자신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난가의 호황 속에서도 채란업자들이 채란계산업에 대해 안정적인 업종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불안한 심정으로 종사해 오고 있음은 비약적인 성장·발전의 저해요인이 분명하다.

내년 하반기는 불황조짐 있어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비취볼 때 불황이 닥쳐도 그 기간이 8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다시 호황

표 2. 산란 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

(단위: 천수)

구 분	'88	'89	'90
1	1,742	1,355	1,970
2	2,205	2,569	1,959
3	2,428	2,683	2,302
4	2,365	2,420	2,117
5	1,790	2,562	2,229
6	1,283	2,352	2,229
7	1,335	1,925	2,405
8	1,420	2,237	2,127
9	1,695	2,197	2,026
10	1,743	1,959	2,026
11	1,402	1,806	
12	1,185	1,904	
총 계	20,593	25,969	

기로 전환되었지만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불황조짐은 그 깊이와 기간이 매우 깊고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호당 사육수수가 크게 늘어나 각 계군의 관리상태가 소홀해져 개체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 점과 증계 사육수수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소비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란업에 종사하는 우리 양계인들은 국내의 양계산업이 안정적인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생산에 노력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모색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